

東大新聞

7주이던
신문

배워서 들은 것이 많고 계몽을 지켜 읽지 않으면 이
승과 저승에서 기림을 받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
법규경 · 교학팀 46월

1998년(월간 2542년) 3월 16일(월요일) 제 1243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 -10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정택성 /부주간 고창택 /편집국장 이익성 /편집장 최정식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 ~ 2 FAX(02)279-1270 /780-714 경복경주시 역삼동 707(0561)770-2057

임권택 감독 본교 강단에 영화연출 1년지도



영화 '씨받
이', '서편
제', '장' 등
으로 널리 알
려진 한국영
화의 거장 임
권택 감독이

지난 12일부터 본교 연극 영상학
부 겸임교수를 맡아 강단에 선
다. 오랫동안 연출을 해온 임감
독은 영화 연출 I 과목을 1년동
안 강의할 예정이다.

박문규 기계공학과 교수 '인공위성 관력' 해외 연구 수주

본교 기계공학과 박문규 교수
는 지난 12일 미국 공군 국방 과
학연구소에서 '스트레인지 에너지
힌지'를 이용하는 태양판의 전개
운동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하에
연구의뢰를 받아 총2만5천불의
연구비를 받았다.

대학원 이영철씨 은상수상 휴먼테크 논문대상에서

제4회 삼성전자 휴먼테크 논문
대상에서 이영철(반도체과학 석
사과정 1학기)씨가 은상을 수상
했다.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패
스 트랜지스터 로직을 이용한 저
전력 고속 54x54 bit 고품질 설
계'라는 논문으로 은상을 수상하
게 된 이씨는 "어름방학 동안 교
수님과 학생들이 같이 열심히 했
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
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총 2백17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지난 12일 학술문화관 예술극
장에서 장학증서수여식 치러졌
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단대수석
11명, 각 과별 수석 1백82명, 기
금장학 23명, 사회봉사장학 1명
등 총 2백17명이 장학증서를 받
았다.

보직교수 인사발령

본교는 지난 3월 12일자로 교
무처장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교무처장=서윤길(불교대 불
교학부)교수
△사회교육원장=권기중(불교
대 불교학부)교수
△불교대학원 교학부장=정승
석(불교대 불교학부)교수
△행정대학원 교학부장=이윤
근(사과대 경찰행정학과)교수
△경영대학원 교학부장=홍승
기(경상대 경제통상학부)교수

룸비니관 '최상의 복지' 기대

지난 11일 기공식, 본격 공사 시작 ...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학내의 복지공간 부족으로 많
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
는 가운데 지난 11일 룸비니관
(가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
사가 시작됨에 따라 복지공간부
족에 따른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기공식은 △삼귀의
례 △이법산 정가원장의 특경 및
축원 △김중욱 관리처장의 경과
보고 △간담건축사사무소 김지호
대표의 건물개요 설명 △오복원
이사장 차사 △송석구 총장 식사
△김중욱 관리처장 식사 △사총
서원 △시상 등의 순서로 진행했
다. 이 자리에서 오복원 이사장
은 "어려운 시기에 동국인들을
위한 복지공간을 만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
으며, 송석구 총장은 "학내 휴식공
간이 부족하던 차에 휴식과 연구

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와 함께 김중욱 관리처장은 축사
를 통해 "동국대가 앞으로는 중
구의 대학으로써 더욱 발전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축승인과 건축승인을
받아 지난달 5일 시공회사인 주
식회사 금강종합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지난 2월 10
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오는
99년 2월 완공 예정인 룸비니관
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1천1백63평이다. 평면
상으로는 원형과 직각삼각형이
교합된 형태이며, 외관은 복층
유리와 노출 콘크리트로 이루어
진다. 또한 지하 1층은 기계·전
기실, 지상 1층은 학생식당과 스
넥코너, 2층은 학생식당과 커피
점, 3층은 교직원식당과 불교경



사진은 지난 11일 있었던 기공식 중 시상하는 장면

점을 연구하는 사경실 등이 들어
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룸비니관 건설과 관련해 이창

진 시설과장은 "점심 때만 되면
학생식당에서는 몇분씩 줄을 길
게 서야 했다"라고 말하며 "룸비
니관이 완공되면 동국의 복지공

간이 확충되어 학내 구성원들이
좀더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룸비니관
건설의 의의를 밝혔다.

총학 구준서·이미성조 단독 재출마

총여·미선거 단과대도 모두 등록 ... 1차유세 19일 동국관앞

제3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제14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그리고 법대를 비롯한 5개단과대
학생회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
난 13일 마감된 가운데 '98 학
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전이 본격적
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11월 실시되었던 선거
에서 당선자의 당선불인정과 당
선기피로 다시 실시하는 이번 선
거에서 총학의 경우 정·부후보
에 구준서(전자공4), 이미성(국
교4)조가, 총여의 경우 정·부후
보에 이정화(공학계열3), 손경숙
(산공4)조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

다.
또한 작년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던 제30대 총대의원장 정·
부후보에는 신현진(연영4), 이종
실(국교4)군이, 단과대학생회 선
거의 경우 △법과대-김 정후보
조성환(법4), 부후보 조정훈(법
4), 을 정후보 이상승(법4), 부후
보 김민태(법3) △이과대-김기중
(물리3) △경상대-한우종(회계
3), 이과관(경상학부3) △예술
대-임동인(연영3) △공과대-김
신영용(컴공3) 을 정후보 유홍식
(산공3), 부후보 이홍범(공학계
열3)조가 지난 12일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이과대와 사범대 대
의원장 후보에는 서기석(물리4)
군과 서미현(역교3)양이 등록했
다.
한편, 총여 선거 투표일은 예
정보다 하루를 늘려 27, 30, 31일
3일간이고 사범대 대의원장 선거
투표는 예정과 다르게 24일로 옮
겨져 실시되며 지난해 한차례 있
었던 공청회는 열리지 않는다.

학내 4주체 공동헌혈행사 마련

25일부터 27일까지 ... 외화절약·이웃사랑의 장 기대

외화절약과 이웃 사랑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회(회장=김
익기·사회학), 총학생회 비상대
책위원회(위원장=이선진·수교
4), 대학원총학생회(회장=박정
진·정치학 박사과정 2학기), 직
원노동조합(위원장=김정욱)이
모여 사랑 나누기, 동국인 나라
살리기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교의 4주체인 학부학생회와 대학
원학생회, 노동조합, 교수회가
모여 함께하는 행사라는데 의의
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
동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 밝
혔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동국관과 도서관 앞에서 실시되
는 이번 헌혈행사와 관련해 교수
회의 조의연(영문학) 총무는 "학

내 4주체인 학부학생회와 대학
원학생회, 노동조합, 교수회가
모여 함께하는 행사라는데 의의
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
동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 밝
혔다.

복학생 1천 3백 52명 어학연수생 조기귀국 영향

IMF 한파로 복학생이 줄고 휴 학생이 늘 것이라는 각종 언론의 전망과는 달리 본교가 휴·복학 생 점수를 마감한 결과, 휴학생 은 약간 늘어났는데 반해 복학생이 크게 증가했다.

'97학년도 1학기부터 급변 학
기까지의 복학생 수치를 비교해
보면 '97학년도 2학기에는 '97학
년도 1학기 1천 72명(수)에 비해 2백
3명이 줄어든 반면, '98학년도
1학기에는 지난해 2학기보다 무
려 5백 13명이나 증가한 총 1천
3백 52명이 복학했다. 휴학생의
경우에는 '97학년도 1, 2학기에
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이번 학
기에는 '97학년도 2학기 9백 82
명과 비교하면 1백 33명이 증가

했다. 이에 학적과의 한 관계자
는 "해외연수 학생들의 조기귀국
으로 복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
인다"고 밝혔다.

'미음이 열려야 세상이 보인다'
송총장 내일 대전에서 강연회
본교 송석구(철학) 총장은 내
일(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 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강연을 한다.
KBS 대전방송총국의 초청으로
실시되는 이번 고양강화특강은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
로 한다. 강연내용은 다음과 같
다. △공정적인 마음 △모두가
하나다 △마음은 죄도 병도 없다
△찬란하얀 운명야 아름다운

'소외된 이웃돕기' 자봉단 모집

오늘(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소외된 주위의 이웃에 도움을
주교자 참가자(단장=송석구·철학)은
오늘(16일)부터 오
는 27일까지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봉사
활동을 모집한다.
이번 봉사활동 신청은 교수,
직원, 학생 등 전 동국인을 대상
으로 이뤄지며 소정양식의 신청
서를 작성해 장학과에 접수하면
된다.
봉사활동 참가 분야는 △직접
봉사=가정을 방문해 가사일 돕

기, 학습지도, 말벗, 상담 등 △
후원금=월 2천원 이상의 희망금
액을 본인이나 정한 기간 만큼 지
원 △물품지원=생활필수품을 비
슷한 기타 물품 지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단장=송석구·
철학)는 "본교가 소외한 중
구에는 주위의 무관심으로 소외
된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그들
을 위해 동국인들이 힘을 모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
다.

오복원 이사장 초청 법회 내일 오후 4시 정각원서

정각원(원장=이법산·선
학)은 내일(17일) 오후 4시
오복원 이사장을 초청해 '개
강 대법회'를 개최한다.
'IMF시대의 불교인의 자
세'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번 법회는 학생, 교직원, 일
반 불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각원 안중철 법사는 "본
교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IMF
시대에 참된 불자로서 자기
모습을 찾고 학문정진에 더
욱 힘쓰길 기원하기 위한 일
환으로 법회를 개최한다"라
고 개강대법회 의의를 밝혔다.

3월 동대신문 꼼꼼히 읽기

16	17	18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보기		

3월 동안
뭐하지

입학식을 치른지 2주째.
처음 설레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무로함으로 일과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구장 · 커피숍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학생회관 지하로 향해 보십시오.
또다른 대학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3월 16일자

보리수

십시일반(十匙一飯)

한 보 풍 (불교대 선학과)

출가하기 위하여 짙어 들어간 행자의 첫 근무
지는 부엌이다. 이곳에서 공양주 노릇을 무사하
마차야 계를 받을 수 있으며, 스님으로서의 자
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공양주의 일부중 하나는
대중들의 숫자에 일맞는 분량의 음식을 만드는
일이다. 즉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모자라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초심자에게 있어서 이를 예측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더욱 공양주를 곧,
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
객이다. 심지어는 대중이 막 공양을 하려고 할
때 불속 찾아오면 대단히 민망스럽다.
그러나 오랜 수행생활을 한 스님들은 전혀 당
황하지 않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여 함께 자리
를 한다. 그러면서 공양대중들에게 빈 그릇을
한바퀴 돌려 한 숟가락씩 보시케 한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청객의 공양이 더 많아지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지혜를 두고 우리는 십시일
반(十匙一飯)이라고 한다.
그렇다. 지금은 우리에게 십시일반의 정신이
요청되는 때이다. 내뿜을 조금 나누어 주는 마
음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고통은 함께 나눌수
록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할수록 많아진다고
한다. 자비의 실천은 멀리 있지 않다. 남의 일
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다. 부
족함을 모르고 자란 철부지의 학생들이라고 할
지라도 부모들의 어려움을 같이 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며, 실직된 이웃이나
동료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나의 박봉도 줄
여야 한다.
연일 기업은 도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입에
서는 한술소리만 들릴 뿐이다. 과거의 어려움
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국제적인 걸인 국가
로 전락하고 말 지경이다. 아니 벌써 국제적인
걸인신세는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갖는
인정과 지혜가 있다. 어려운 고비마다 굳건히
잘 극복했던 조상들의 슬기가 참으로 필요한
때이다.

교수동정

- ▲이상현(경찰행정학)=오는 8월 서울에서 열
리는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의 조직위원으로
위촉
- ▲김범용(행정학)=오는 20일 미국 아이치하
위재단 초청으로 미국행정시찰과 미국행정학
회 참석 차 미국 방문
- ▲김세준(불교이화학)=지난 3월 7일 서울 교
육대학에서 열린 한국, 일본교육학회 정기총회
에서 제 7회 회장에 선임

본사사령

- ◇임기만료
 - ▲편집장=김기영(사범대 교학4)
 - ▲편집부장=신용우(상경대 관광경영4)
 - ▲취재부장 겸 사진부장=이태훈(사회과학대
신문방송 4)
 - ▲사회부장=조인진(자연대 가정교육4)
 - ◇신임부장
 - ▲편집장=최정식(문과대 독어독문3)
 - ▲편집부장=이해경(상경대 관광경영3)
 - ▲취재부장=김홍원(사회과학대 신문방송3)
 - ▲사회부장 겸 사진부장=오인택(사회과학대
신문방송3)
 - ▲문화부장=최진(생명자원과학대 생명자원경
제3)
 - ◇임기자
 - ▲박영실(사회과학대 사회과학계열2)
 - ▲남대철(정보산업과학대 정보산업학부2)
 - ▲박양우(법정대 법정학부2)
 - ▲황성규(법정대 법정학부2)
- 이상 3월 16일자

알림

수습기자 선발 관계로 3월29일자 신문은 휴간
합니다. 다음신문은 3월30일자로 발행합니다.

98 학생회는 내손으로 건설

무관심·진행미숙 등 문제극복... 하나되는 선거돼야

지난 13일, 제30대 총학생회와 제14대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동아는 다시 '98학년도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11월 실시되었던 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은 채 '실페'로 돌아갔기에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먼저 지난 11월 선거를 되돌아보면 몇가지 커다란 오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유권자인 학생들의 무관심과 그에 따른 투표율의 저조로 선거권위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선거운동원들의 이질감에 어쩔수 없이 투표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학생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방관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기간 내내 지속된 미숙한 진행과, 무리한 유권해석을 지적할 수 있다. 투표율이라고 하는 단순한 수치계산에 있어 투표마감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계산착오를 발견하는 등의 실수는 치명적인 잘못이었다.

끝으로 후보자들의 정책대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선거의 경우 한층런 탈퇴 여부가 각 후보진영간의 대표적 정책인양 유권자들에게 비춰졌으로써 후보선출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처럼 지난 11월 선거는 학생들의 무관심, 선관위의 진행미숙, 후보간의 어긋난 정책대결 등으로 얼룩진 선거였고, 이는 결국 학생회 건설 무산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은 학생회를 세우려 한다는 학생들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고, 학생회도 '학생들의 조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관위의 경우 지난해 드러났던 지나친 유권해석과 진행미숙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를 3월 20일 현재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총학과 총여의 선거일을 분리하는 등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관심을 통한 냉소보다는 선거를 통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보다 튼튼한 학생회가 건설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는 단순한 학생회 건설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선거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는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관계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학생회 건설을 학생들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유권자인 학생들은 투표참여로써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고, 각 단원학생회의 후보자들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회전무대

동대? 근대!

0... 지난 13일, 아무개과 새내기들이 과 이름을 외치며 동약을 힘겹게 달렸는데.

알아본즉, 새내기들의 신체단련 및 정신단련(?)을 위한 재학생들의 특별배려(?)로 아무개과의 연례행사라고.

과의 특성상 새내기 교육이 특별해야함은 인정되지만 '이곳이 근대냐?' 하고 반박하는 학생들도 많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여기 동국대지 근대가 아닐진대.

양심

0... 지난 13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경축 사면조치로 양심수 석방이 이뤄졌는데.

"건국 이래 최대규모"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달리 미전향장기수를 포함, 소위 양심수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들 중 15%에 불과한 74명만이 석방됐다고.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체제전복의 우려' 때문이라니.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로 3-40년 동안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만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DJ정부에게, 알, "양심수,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가르기

0... 개강과 함께 학생들로 다시 폼비는 중앙도서관.

이러한 북적거림만큼이나 들려오는 잡음에 공부(?)를 하기위해 온 학생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데. 특히, 열람실내에서 울리는 핸드폰소리는 도서관의 '말' 적인 존재라고.

이에 열심히 책을 보던 한 학생 핸드폰소리에 놀라 한마디 "도서관 이용학생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핸드폰을 사용합시다!!!"

스툼

0...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야대치로 국회가 회의중에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고소풍편을 벌였는데...

그러나 1점당 1만원짜리 고소풍을 벌이는 이들을 보고 주변에서는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이러다가 우리네 정치도 스팀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방문 입시전형 진단

수험생 심리적 불안감 해소 큰 몫 홍보전략·지역과 타대학간 연계 필요

본교는 과도한 입시경비의 절감과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98학년도 입시에서 국내 최초로 입시전형을 지방 8개 지역에서 나눠 실시하는 새로운 입시전형을 선보여 지방 학생들 및 학부모에게 큰 만족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번 입시를 부산에서 치른 김영균(인문학부 1)군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명소에 잘 있는 지역이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보 부족, 경제적 부담, 타대학과의 연계성 부족 등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수정·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외관련, 입시전형료가 오르지 않을지는 우려도 있으나,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수험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며 "전형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만 올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타대학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한 지방학생이 가, 나, 다, 라군 모두 서울소재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2개대학이상을 본거지에서 시험을 치른다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만족도에서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방문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본교를 제외한다면 전무한 실정이다.

'98학년도 대학입시 지역방문 전형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홍보부족이다. 문과대의 한 학생은 대전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기간 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서울까지 올라와 시험을 치렀다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는 있었으나, 지방의 일선고교나 학원에는 입시요강 이외의 홍보자료가 없어 일부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관련, 입시전형료가 오르지 않을지는 우려도 있으나, 입학과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수험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며 "전형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만 올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98학년도 입시 지역별 고사장에서 입학전형고사를 치를 예상 수험생수는 3천여명이었으나, 실제 응시 수험생은 1천여명에 지나지 않아 홍보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실시한 제도도 홍보부족으로 수험생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경비부족을 들 수 있다. 이번 지역방문 전형에서 본교가 지출한 비용은 고사장 시설

편의 일반신문을 포함한 총 15권이 수록되었다.

알림

제1242호(3월 9일자) 2면에 실렸던 '대학원학술연구비 명분없다' 기사에서 '순수하게 학술연구 지원비로 지급된 금액 5백만원'은 25개 학과에 각 20만원씩 지급된 학술연구지원비의 총액이 아니다.

"이웃사랑 동국이 앞장선다"

'미터 1원 사랑의 레이스'... 총장 비롯 본교연예군단 참가

동아일보 주최로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제89회 동아마라톤대회에 본교 송승구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해 '미터 1원 사랑의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올해에는 홍경인, 홍진경, 안연홍, 채정안, 토니안, 강타, 이지훈 등 본교 연극영화학과 재학생 중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 1부와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부모님 또는 친지의 기존 전화 명의로 해야 한다.

IFP실직자 자녀의 장학금 기금 조성을 위해 열리는 이번행사에 대해 H.O.T의 토니안(연극영화학부2)군과 강타(연극영화학부1)군은 "활동을 쉬고 있는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참가하게 되었다"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동연, 23일부터 동아리박람회 개최

제14대 동아리연합회(회장=박영민·건국4)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개별 동아리의 성격을 동아리연합회라는 하나의 불거리를 통해 보여주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23일, 제14대 동아리연합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불상 앞 팔짱에서도 막이 올라 5

일간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경당 치우와 검도부의 시연, 만화열을 비롯한 예술창작 분과의 작품 전시 등 각 분과별로 준비한 행사가 치러지며 '새내기들을 위한 8개 분과 62개 동아리를 알리는 '동아리 소개지'도 배포될 예정이다.



필승... 지난 13일 동국과 앞에서 이충우최로 열린 '양심수 전일석반과 김영삼 시범치리를 위한 새내기 동국대회'의 8강전 모습. 대회의 이름 만큼이나 시험에 임하는 선수들의 표정이 진지해 보인다.

수강신청 취소 25, 26일 성적표에 'W' 표기

교무처(처장=서윤길·불교학)는 오는 25, 26일 양일간 각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수강신청 취소를 실시한다. 적용자는 '98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 중 1, 2, 3학년 대상 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며, 수강과목을 취소한 자는 다른 과목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취소한 과목은 해당 학기 성적표에 'W'로 표기된다.

역경원, '초의집' 등 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6일 '초의집', '사익법전소문경', '현종삼매대교왕경'을 번역·완간했다.

'초의집'에는 다(茶), 선(禪), 시(詩)에 능했던 조선시대 선사 초의의 저서 '초의시집', '다선전' 등이 실려있고, '사익법전소문경'에는 AD102년에 구마라집이 한역한 것으로 명명보살이 사익법전을 위하여 모든 법이 공적임을 살한 것이다. 또한 '현종삼매대교왕경'은 밀교의 수행법으로 삼장에 의해 한역된 번역본이다.

"8천원으로 전화 놔준다"

생활협동조합(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은 입학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오늘(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서관 앞에서

새내기들을 위한 '8천원으로 나만의 전화를 가질 수 있다' 행사를 마련한다.

약 25만원의 가입비 없이 설치비 8천원만 받고 전화를 설치해주는 이번 행사는 98학년도 새내기 학부생, 편입생, 대학원생들 중 선착순 5백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전화가입 대상 지역은 중구내로 한정된다.

신청은 행사장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1부를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 1부와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부모님 또는 친지의 기존 전화 명의로 해야 한다.

불대, 신입생교육 실시 매월 정기법회 개최

불교대 학생회(회장=최준호·불교4)는 불교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불교'를 비롯 '부처님', '인도철학(근본 불교)', '대학생활' 등 4개영역, 4개 교육을 2개월동안 실시한다.

이와 관련, 최준호 학생회장은 "1년교육은 그동안 불교대내에서 계속 이어져오던 전통을 계승하고, 신입생들에게 불교와 대학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이번교육의 의의를 밝혔다.

이밖에도 불교대는 본교의 교수나 외부강사를 초청해 매월 한 차례에 걸쳐 대각전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학기 컴퓨터 단기 특강

과목	강사	시간	일자	차수	수강료	장소
한글윈도우 95 및 인터넷 사용법	신준철	평일시간	4월 4일(토)	1차	8,000원 (교재 포함)	컴퓨터 실습실KJ (문화관 2층)
			4월 11일(토)	2차		
			4월 18일(토)	3차		
			4월 25일(토)	4차		
			5월 2일(토)	5차		
			5월 9일(토)	6차		
			5월 16일(토)	7차		
			5월 23일(토)	8차		
			5월 30일(토)	9차		
			6월 6일(토)	10차		
			6월 13일(토)	11차		
			6월 20일(토)	12차		
한글프로 96 사용법	황순영	평일시간	4월 4일(토)	1차	10,000원 (교재 포함)	컴퓨터 실습실GC (배화관 1층)
			4월 11일(토)	2차		
			4월 18일(토)	3차		
			4월 25일(토)	4차		
			5월 2일(토)	5차		
			5월 9일(토)	6차		
			5월 16일(토)	7차		
			5월 23일(토)	8차		
			5월 30일(토)	9차		
			6월 6일(토)	10차		
			6월 13일(토)	11차		
			6월 20일(토)	12차		

- 신청자격 : 동국대학교 재학생(학생증 필수 지참)
- 접수장소 : 배화관 1층 컴퓨터교육원사무실 ☎:260-3852~3)
- 접수기간 : 98. 3. 23 ~ 4. 3.(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요일 제외)
- ※ 수강인원이 적은 과목의 차수는 컴퓨터교육원 사정에 의해 폐강될 수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폐강시에는 수강료 환불)
- 단 폐강을 제외한 과목은 접수기간이 지나면 환불 불가

컴퓨터교육원

등록금 수납 연장

본교는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등록금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짐에 따라, 98학년도 1학기 미등록생을 위하여 등록금 수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게 되었으니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수납 연장 기간 : 98. 3. 21(토)
2. 수납 장소 : 제일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총무처장

8,000원으로 나만의 전화를 가질 수 있다

입학 축하 전화 달기

1. 행사기간 : 98. 3. 16 ~ 3. 31
2. 대 상 : 98학년도 새내기 대학(원)생(원입생 포함)
3. 장 소 : 중앙 도서관(상성 노트북 특관 옆)
4. 전화가입 대상 지역 : 서울시 중구 전지역(선착순 5백명 한정)
5. 구비서류 : 1) 대학(원) 입학 기념 전화 가입 신청서 1부(행사장 비치)
2) 등록금 납입 영수증 사본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6. 참고사항 : 1) 기설정화 명(부모님 또는 친지)로 신청
2) 기설정화 해지하는 설비비를 무료전화로 대체
7. 문 의 처 : ☎ 264-0200, 265-0200
※ 1차 : 3. 16(월) ~ 3. 18(수)까지는 도서관 앞에서 접수, 이후에는 전화 접수 또는 을지 전 회국에서 직접 접수

생활협동조합

봄 특강

1. 기 간 : 98년 3월 30일 ~ 5월 15일
2. 접수기간 : 98년 3월 16일 ~ 4월 3일까지
3. 고개강의 : 3월 30일 ~ 4월 1일까지
4. 강 의 료 : 20,000원
5. 시 간 : 7시 30분 ~ 8시 40분
6. 접 수 처 : 구내서점(다학관 지하)

강의시간표

	K306	K307	K308	K205	K206
7시 30분 ~ 8시 40분	천구 SYSTEM 토의	안락사 토의	아카데미 토크	CULT ENGLISH	시사 신경향 토크

열네번째 학생복지위원회

총운영위원회

1차 정기 총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아 래—

1. 시 간 : 1998년 3월 17일 화요일 늦은 5시 30분
2. 장 소 : V204(명진관 옆 가건물)
3. 내 용 : 1) 10대 졸업준비위원회 사업계획보고 및 집행부인준
2) 앨범업제신청방법결정
3) 회칙개정

10대 졸업준비위원회

여·야의 역할 시사논단

당론이 국론을 앞설 수 없다

같은 먼데

나라의 길 같은 정말 바쁘다. 특히 경제는 하루가 급하다.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는 낮에는 전철에서 밤에는 지하도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안팎의 여력이 빚발치자 한나라당은 총리명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분리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꾸어 국회는 일단 문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안팎의 여력이 빚발치자 한나라당은 총리명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분리하는 쪽으로 당론을 바꾸어 국회는 일단 문을 열게 되었다.

당론이란 족쇄

이런 정국상황은 왜 벌어지고 있을까. 전성철 변호사의 시론(3월11일자 조선일보)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도대체 당론이란 무엇인가. 어느 정당이고 국익을 우선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의 산물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전후 50여년간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기간동안 여소야대의 구도도 이루어져 왔다.

급도 그렇다. 그 까닭은 국회의원들에게 당론이란 족쇄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와는 정치문화가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국익우선과 국민이익을 행태의 기준으로 삼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국론이 우선되는 정치로

우리는 왜 국회의원을 당론으로부터 해방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낡은 권위주의적 행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도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간다.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도 버려야 할 지난 시절의 병이 크게 도져 정치가 인생을 의



유 광 진 시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면하고 있다. 정치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꼴을 보고 국민치고 누군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정기간 밀원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야당도 국민을 좀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갈 길 바쁜 나라사정을 당론이란 이름으로 잡지 말고 폭넓은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

사설

롬비니관 건립과 복지 향상

지난 11일, 과학관 뒷편에서 99년 2월 완공 예정으로 롬비니관의 기공식이 열렸다. 정보매체센터와 함께 동약의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가 연이어 실시됨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그동안 '먹는 문제'라는 가장 초보적인 복지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 단순히 배만 채우면 되는 시대는 지나간 것이다.

우리는 이제 또 한번 그 어느 대학보다도 앞서서 복지·문화공간으로서의 식당을 갖게 되었다. 롬비니관을 자랑스러운 복지공간으로 만들기를 위하여 많은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자.

학생증과 현금직불카드 하나로

시스템연계·학생정보유출 걸림돌

학생증과 현금직불카드를 하나로 합치면 은행에서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장학과, 도서관을 분주히 뛰어들고 있는 학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과 달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있다.

본교도 학생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98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증과 현금직불카드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관계부서간(전자계산원, 장학과, 도서관, 제일은행측 실무담당자)회의가 7차례나 진행됐지만, 예산문제와 부서간 견제차이로 9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학생증발급을 전담하고 있는 장학과는 93년도부터 바코드 방식을 채택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현금직불카드에는 보편화되어 있고, 현금인출기능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 에 무리하게 학생증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며 "결정적으로 IMF시대가 도래하면서 추가비용이행인 제일은행의 예산문제

현금직불카드의 기능을 추가시키기 힘들었다"고 1년 유보시킨 이유를 토론했다. 물론 학생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한다면 학교행정면에서 편리할 것이다.

한편, 현재 학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도서관을 거쳐야 한다. 학교 행정시스템은 LAN을 통한 동국종합정보시스템(DRIMS 2545)이 모든 학교행정을 총괄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검색과 도서대출 등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삼보컴퓨터가 개발한 VINTAGE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타대학의 경우 95년부터 고려대, 한국의국여대가 학생증과 현금직불카드를 하나로 만들었고 서강대, 경희대, 한양대 등 대다수 대학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타 대학 학생증 재발급 기한이 20일에서 30



일 정도로 오랜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증을 분실한다면 재발급 기간동안 불편을 겪을 것이다.

제일은행 측은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카드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타대학의 경우를 거울삼아 재발급기한을 10일 정도로 단축시키기 위해 학생개인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CD-ROM에 저장하는 방식을 고안중이다.

생활경제운동 활성화의 길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학 발전과 개혁도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하에, 지난해 말부터 경주캠퍼스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국인 생활경제 운동'이 학내 3주체의 공조 미흡으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는 학생증을 새롭게 바꿀만한 기한이 촉박했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은행에서 바로 학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도서관 대출업무와 학교 행정시스템의 연계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빠른 시일안에 학생증이 재발급될 수 있도록 학생증발급 장비와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학에서 주최하고 있는 '하·바다운동'은 각 단과대의 협조와 동참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체로 나서야 할 학생회가 손발을 걸어 부치고 나서지 않으면서 일반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힘 모아 나라사랑 뜻 모아 거려사랑



창업자 유일한 박사 1971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실천, 전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父傳女傳



딸 유재라 여사 1991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이 모은 전재산을 사회에 내놓았다.

2대에 걸친 재산의 사회환원- 유한의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유한의 기업정신 유한은 기업이윤의 40%를 사회에 환원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켜온 유한양행 72년

'좋은 약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업이념은 끊임 없는 우수의약품의 개발로 이어져 버들표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으며 각종 치료제를 해외로 수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유한의 연구개발

새로운 간장질환치료제(YH-439)와 항게양 약물(YH-1885), 그리고 에이즈 치료원료를 개발하는 등 한 순간도 멈추지 않는 유한의 새로운 신약개발은 건강한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신용의 상징-버들표 유한양행

동약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과감한 구조조정 시대요구

저비용고효율 행정체계 대학 미래 좌우



기원

지난 13일 오후 총학, 총여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일박한 시각, 총대의원회의실에서는 하루 전날 마감한 미선거 단과대학생회장, 총대, 이과대, 사범대 대의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서류를 중선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제 열린 총학과 총여, 총대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무장 불미됨, 중선위장과 함께 선거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학생회 건설'이라는 대명제는 이젠 없는 듯 선거일정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러나 '다시 헤아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중선위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후보자들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한 중선위원은 "미선출 단위의 후보등록은 다 됐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라며 선거가 잘 치러질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낸다.

한 중선위원의 말에서 느껴지듯 이번 선거는 후보자나 중선위원을 비롯한 유권자 모두에게 쉬운 선거는 아닐 것이다. '90년도 이후 3월에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 일례가 처음이다'라는 총학생회 비대위 관계자의 강조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동약의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반쪽짜리 당선자'를 만들었고 끝내는 이들에게 '사퇴'와 '당선불인정'이라는 상흔까지 짊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 모두가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되찾고 행사함으로써 지난 해와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기권과 무관심으로 일관되는 모습이 아닌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만이 학생회 건설의 정답이다.

오는 4월3일이면 98학년도 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는 막을 내린다. 3월 말, 동약인들의 환경과 추위속에 새롭게 탄생되는 학생회를 기원해 보자. 유철주 기자

IMF 관리체제하에서 사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단과대학을 계기로 대학의 부도가 현실로 다가선 만큼 효율적인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위해서 대학내 유사학과나 유사과목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학생들이나 사회의 수요가 별로 없는 전공은 축소해야 하는 것이 시대상 요구이다. 여태까지 대학은 학과라는 보호장막 속에서 공급자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최근의 교육환경변화로 패쇄적인 학과단위의 운영은 이미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백화점식 학과설치보다는 경쟁력 있고 특성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학과의 벽을 허물고 학문간 연계와 학생들의 전공선택폭을 넓힐 수 없게 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학부제 운영이 채택과 당근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학부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율과 경쟁을 토대로 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마당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변화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과거의 학과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학부제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대학의 정책결정담당과 해당 전공의 주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학부제의 보완과 확대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이다. 한편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행정체제도 '저비용 고효율'을 토대로 재구조해야 한다. 흔히들 교수와 직원의 신규채용은 억제하고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생긴 결원은 보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비를 절감하려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시적인 인건비 절약은 될 수 있어도 '고효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대학들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덩달아 늘어난 보직 교수의 수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사분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보직의 경우에는 같은 교수가 겸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비 절감을 위해 필요할 듯 하다.

또한 직원의 행정조직도 업무량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편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직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중요한 행정부

서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는 인원을 보충해 주고 새롭게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는 독립 부서로 승격시켜 조직을 확대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부서나 일거리가 적은 부서는 통폐합하여 인력과 경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많은 대학들에서 실시하는 직원들의 순환보직제에도 굳이 지금은 고집해야 할 필요가 없다. 대신 예산·재정·수입·입시·발전 기획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직원의 연수, 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오래 그 일을 맡겨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교육전문가인 교수와 행정전문가인 직원이 공존하면서 대학이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대학도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각 부서의 전문인력들로 대책팀을 구성하여 기획과 입안, 자금조달과 사업의 집행을 전담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홍승기
경성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고용안정·인권보장 평등의 시대로' 세계 여성의 날 다채로운 행사 개최



사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제14회 한국여성대회 모습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지은희 이하 여연)은 올해로 90주년을 맞이한 '세계 여성의 날'과 유엔 인권헌장 선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일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제14회 한국여성대회'를 실시했다. '가자, 여성이여! 고용안정,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의 시대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

는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주안자 보건복지부 장관, 신남근 문화관광부장관, 오재식 한국선명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희호 여사는 치사를 통해 '사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여성과 인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나

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성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연은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우조교측 변호인단인 박원순·최원순·이종걸 변호사에게 '제10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행사에 참가한 한 여성은 "11회 여사의 치사를 들으니 정권이 여성운동에 호의적인 것 같다"며 "시정권에서 진보적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운동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여연도 주택은행 강당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비대위장=단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박인상), 여성노동자협의회(회장=이철순)가 공동주최한 '고용안정과 평등을 향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됐다. 문화공연 중심으로 진행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노동계 연대 축하메시지, 98여성노동자선언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98여성노동자선언문에서는 고용안정과 고용확대를 위한 여성노동계의 요구와 인식지 과정노동자의 권익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장했다.

단신 3·13 특별사면·복권

정부는 지난 13일 김대중대통령 취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 및 행정처분 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간곡이려 회대 규모인 2천3백4명을 진행하며, 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6백32만여명의 운전면허 발급을 면제해 주었다.

석방대상자 중에는 밀입북 사건으로 관련된 서경원 전의원과 소설가 황석영씨, 박정희 전 의대 교수, 진관스님 등 공안사범 74명이 석방되고 단병호 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노동관련자 2백80명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재야단체에서 끈질기게 석방운동을 벌여온 사노맹 사건 관련자 백태웅씨와 노동자 시인 박노래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98년 한총연 연대행정 관련자 등 회원사범 1백23명 가운데 한총연 핵심간부 40명이 석방되고, 8백21명에 게 형량조사와 및 복권조치됐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임기린 이하 민가협)는 이날 오후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가족과 함께 제한적 양심수 석방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민가협을 비롯한 참여연대, 정국연맹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항의성명서를 내 새정

부를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린 상임의장은 성명서에서 "간곡이려 회대 규모라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정부의 3·13 사면조치는 국민대와 합과 민주제도약을 위한 조치라는 거창한 취지설명에 무색하게도 전체 양심수 4백78명(98년 3월 현재)의 15%에 불과한 74명만이 석방됐을 뿐이다.

이는 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경중 사면조치 당시 양심수의 28%(144명)를 석방한 조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15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집권하면 양심수를 석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국민정부의 개혁의지에 심한 의구심, 마저 들게 한다. 김대중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진정한 국민대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양심수를 모두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실현은 "민생법을 위반자들을 대거 포한시킨 것 및 선거법 위반자나 비리관련자들이 빠진 것은 다행이지만 인권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실망스럽고 입장을 밝혔다.

ANAM advertisement for Mini Reference audio system. Features include: '이게 정말 네 소리니?' (Is this really your sound?), '조그맣게 태어났지만 너에겐 힘이 있구나!' (Small but has power for you!), and 'Mini Reference' branding. Lists components like Amp, CD player, Tuner, Speaker, and Deck with prices. Contact info: (02)568-8572 아남전자.

최근 발간된 '데이터 본 동국대학교의 변모'는 교원, 직원, 학생, 학사, 연구, 행·재정, 교육시설, 대학원, 부속기관, 교육개혁의 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 동국의 세계화, 건학이념의 실천, 교육환경 개선, 대학종합평가, 기타 통계자료로 구성돼 있다. 이중 제6장 연구부분, 본교 교수들의 연구비 수혜현황과 연구실적은 타대학과의 경쟁력 부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수 인지도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파악해 본지에서 발췌해 다뤄본다.

연구분야

수혜율 → 94년 대비 179.19% 증가

실적 → 학술논문발표 기준 ... 자연계열 두각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로 95년 8월 연구지원 부서가 확대·개편되어 연구교류처의 독립이 있었고 효율적인 연구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강의와 연구의 질적향상과 업적에 따른 연구비 차등지원 등은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 목적으로 연구업적평가제를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전년도 업적에 따른 특별연구장려금의 차등지급을 시행하였다. 또한 96년 5월부터 연구비 관리를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수들에게 효율적인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수행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구비 중앙집중관리제의 정착, 연구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홈페이지의 구축, 연구정보게시판 설치 등 다양한 개혁사업을 추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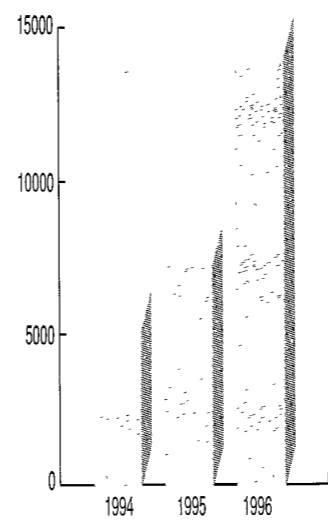
또한 94년부터 인문·사회·자연과학 3개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 연구업적이 분야별로 뛰어난 8명의 교원에게 지원하는 특별학술연구비, 93년부터 매년 1년간의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특별연구장려금, 94년부터 국내의 전문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발표토록 권장하고 있다. 학문의 경쟁력과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지원뿐만 아니라 신입교원이 부임초기 근무지 변경에도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연구업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97년부터 신입교원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논문위주로 편성된 지원을 저서 및 번역에 대한 지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연구분위기를 제고하고자 97년부터는 저서 및 번역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대학발전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교내연구비를 신설하여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업적평가제의 영향으로 교수 1인당 교내의 연구비 수혜액이 94학년도 5백1만원에서 95학년도 7백14만 3천원, 96학년도 1천3백98만8천원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94년도를 기준으로 95학년도에 42.5%, 96학년도에 179.19%가 증가하였다.

캠퍼스별 교수 1인당 교내의 연구비 수혜액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94~95년도 대비 59.77%, 95~96년도 대비 111.68%의 증가실적을 보였으며, 경주캠퍼스 역시 94~95년도 대비 9.23%, 95~96년도 대비 123.23% 증가하였다.

대학별 교수 1인당 교내의 연구비 수혜액 대학별 교수 1인당 교내의 연구비 수혜액의 경우 서울캠퍼스에서는 94년도에 공과대학이 약 1천3백28만원, 95년도에는 이과대학이 약 2천3백67만원, 96년도에는 생명자원과학대학이 약 3천9백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캠퍼스에서는 자연과학대학이 94년도 약 4백66만원, 95년도 약 6백85만원, 96년도에는 한의과대학이 약 1천1백39만원

연구비 수혜액 (단위: 천원)



인문사회계열 교수 1인당 교내의 연구비 수혜액

학년도	구분	연구비 수혜액			전임교원수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
		교내	교외	계		
1994	서울캠퍼스	117,400.00	1,116,597.84	1,233,997.84	98	12,591.81
	경주캠퍼스	60,500.00	148,833.34	209,133.34	63	3,319.58
	계	177,900.00	1,265,431.18	1,443,131.18	161	8,963.55
1995	서울캠퍼스	126,300.00	1,840,304.28	1,966,604.28	107	18,379.48
	경주캠퍼스	70,300.00	278,121.00	348,421.00	62	5,619.69
	계	196,600.00	2,118,425.28	2,315,025.28	169	13,698.37
1996	서울캠퍼스	224,625.00	3,690,001.00	3,914,626.00	115	34,040.23
	경주캠퍼스	105,300.00	493,562.00	598,862.00	67	8,938.24
	계	329,925.00	4,183,563.00	4,513,488.00	182	24,799.38

자연계열 교수 1인당 교내의 연구비 수혜액

학년도	구분	연구비 수혜액			전임교원수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
		교내	교외	계		
1994	서울캠퍼스	117,400.00	1,116,597.84	1,233,997.84	98	12,591.81
	경주캠퍼스	60,500.00	148,833.34	209,133.34	63	3,319.58
	계	177,900.00	1,265,431.18	1,443,131.18	161	8,963.55
1995	서울캠퍼스	126,300.00	1,840,304.28	1,966,604.28	107	18,379.48
	경주캠퍼스	70,300.00	278,121.00	348,421.00	62	5,619.69
	계	196,600.00	2,118,425.28	2,315,025.28	169	13,698.37
1996	서울캠퍼스	224,625.00	3,690,001.00	3,914,626.00	115	34,040.23
	경주캠퍼스	105,300.00	493,562.00	598,862.00	67	8,938.24
	계	329,925.00	4,183,563.00	4,513,488.00	182	24,799.38

연구실적 현황

1. 교수의 국내 학술논문 발표 실적

교수 1인당 국내 학술논문 발표 실적은 94년도 1.82에서 95년도 1.95, 96년도 2.03으로 증가하였다. 캠퍼스별 교수 1인당 국내 학술논문 발표실적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94년도 2.38에서 95년도 2.42, 96년도 2.46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주캠퍼스 역시 1.20에서 95년도 1.43, 96년도 1.5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하는 교수는 우대하며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년간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특별연구장려금의 지급,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발표토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학문의 경쟁력을 높여온 소산이다. 또한 연구능력을 키우기 위한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연구비 지급 등 최근의 4~5년 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교수의 연구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계열별 교수 1인당 국내 학술논문 발표 실적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94년도 1.85에서 95년도 1.82로 감소하였으나 96년도에는 1.98로 증가하였다.

자연계열은 94년도 1.81에서 95년도 2.13, 96년도 2.05로 증가하였다. 연구실적의 내용면에서는 학회지에 발표한 학술논문 편수가 전체 연구실적의 60%에 달하여 자연계열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함을 보여 주고 있다.

예체능계열은 94년도 1.63, 95년도에는 1.49로 감소하였으나,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과는 달리 연구논문 작성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는 2.33으로 증가하였다.

교수의 국내 학술논문 발표실적(전체)

학년도	구분	전임교원수	발표 실적						교수1인당 발표실적
			학회지	대학논문집	연구보고서	공역전시	기타	계	
1994	서울캠퍼스	261	296.42	215.62	58.20	4.18	47.62	622.04	2.38
	경주캠퍼스	236	101.68	133.74	9.65	9.27	28.01	282.35	1.20
	계	497	398.10	349.36	67.85	13.45	75.63	904.39	1.82
1995	서울캠퍼스	277	376.17	182.18	48.24	8.61	54.37	669.57	2.42
	경주캠퍼스	246	164.94	127.80	8.39	9.89	40.59	351.61	1.43
	계	523	541.11	309.98	56.63	18.50	94.96	1,021.18	1.95
1996	서울캠퍼스	306	344.06	153.40	100.37	12.58	143.30	753.71	2.46
	경주캠퍼스	260	212.25	79.29	32.38	13.34	57.77	395.03	1.52
	계	566	556.31	232.69	132.75	25.92	201.07	1,148.74	2.03

2.72점으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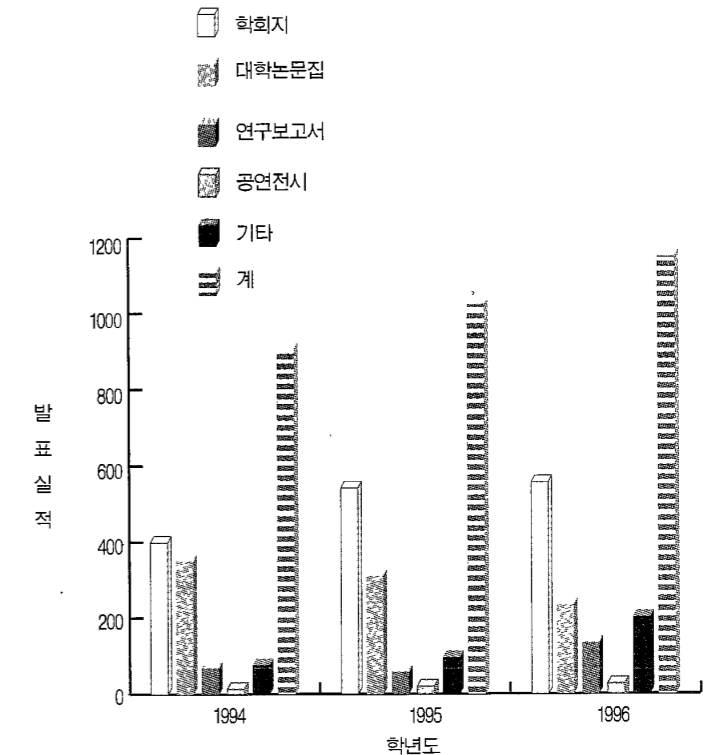
2. 교수의 해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

교수 1인당 해외 학술논문 발표 실적은 94년도 0.13에서 95년도 0.13, 96년도 0.15로 증가하였으며, 캠퍼스별 교수 1인당 해외 학술논문 발표실적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94년도 0.21에서 95년도에는 0.19로 감소하였으나, 96년도에는 0.23으로 증가하였으며, 경주캠퍼스는 94년도 0.04에서 96년도 0.06으로 나타났다.

연구실적의 내용면에서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수가 94년도 56.04에서 95년도에는 44.81로 감소하였으나, 96년도에는 72.03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학술논문 발표 실적



'데이터로 본 동국대학교의 변모' 란
교육개혁 조치와 더불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로 동국대학교의 변화를 환하게 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나아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경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지표로 활용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데이터 본 동국대학교의 변모는 대학구성원에게는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각 행정부서에게는 정책결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발전됐다.

1학기 단기강좌 개설

여학생부처에서는 이번 1학기에 아래와 같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단, 정원 이하의 강좌는 폐강되며, 최대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 마감됨)

또 다른 워킹대학 SOHO사업 (Small Office Home Office)	선물포장·꽃장식	스프링클런스	이미지메이킹	이벤트를 알면 성공할 수 있다	건강교실
1. 소규모사업장 SOHO란? 2. SOHO의 다양한 비즈니스 스타일 3. SOHO사업의 전략 4. 인터넷·PC통신을 이용한 SOHO 사업 활용법 5. 저출발 수 있는 Best SOHO사업 아이템	(한국꽃예술작가협회 경이꽃꽃이회 회장)	(동국대(대)대) 채유교 육과 교수)	(동덕여대 메이크업과) 수, 신단주 헤어·메이크업 아카데미원장)	(부산예전 이벤트예술과 교수) 한국이벤트개발원장)	(삼성제일병원 가정의학과장, 성균관대 외과교수)
1. 선물포장의 기본과 실제 2. 리본장식의 기본과 실제 3. 꽃장식의 기본과 실제 4. 자켓증 위촉과 경영	1. 기본스텝연습 2. 실기 3. 반복	1. 얼굴형에 따른 윤곽수정 2. 헤어스타일링 3. 호감 가는 화장법 4. 눈썹, 볼, 입술화장 5. 셀프 헤어 테크닉 6. 토털 이미지 메이킹	1. 도매제 이벤트란 무엇인가? 2. 사랑과 성공을 위한 이벤트 전략 3. 이벤트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방송, 광고, 홍보, 관측, 이벤트, 국제비즈니스 등) 4. 독창적인 Idea 창출기법	1. 스트레스를 이기면 능력이 오른다. 2. 스트레스와 신체변화 3. 손쉬운 다이어트? 4. 다이어트의 부작용과 대처	1. 스트레스를 이기면 능력이 오른다. 2. 스트레스와 신체변화 3. 손쉬운 다이어트? 4. 다이어트의 부작용과 대처
화요일(200~400)	월요일(500~500)	월요일(500~500)	월요일(1100~1100)	월요일(1100~300)	월요일(1000~1200)
* 준비물 - 필기 도구	* 준비물 - 강사와 협의	* 준비물 - 면담일, 간편한 복장	* 준비물 - 본인준비	* 준비물 - 필기 도구	* 준비물 - 필기 도구

1. 접수기간 : 1998. 3. 18(수) ~ 1998. 3. 31(화)
 2. 접수장소 : 계산관(사범대 옆건물) 1층 안내책상
 3. 대상 및 수강료 : 1) 대상 : 동국인 누구나
2) 수강료 : 5,000원
3) 수강증을 교부함.
-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부처

새내기 새로 배움터 뒷마당

1. 대상 : 동국대 재학중인 98학번
 2. 핵심진(특수한 경우) : 총학생회 추천도서증
 3. 원고분량 : 원고지에 한해 제한없음
 4. 마감 : 3월 21일
 5. 접수 : 총학생회, 동대신문사 각 단과대 학생회실
 6. 시상내역 : 독후감 - 1) 아리랑 1점
2) 일격정 1점
3) 감오농민전쟁 1점
수기 - 1) 장길산 1점
2) 불날 1점
- 교양**
- 1) "새내기 일년나기" 동영 - 편집부
 - 2) "오! 한강" 팀 메니아 - 허영만
 - 3) "전태일 평전" 둘째 - 조영래
 - 4) "연분홍치마" 개마고원 - 김준만
 - 5)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 김준만
 - 6) "사랑이 살고 있었네" 시와사회 - 함석영
 - 7) "레드클릭" 삼인 - 김준만의 9인
- 사회과학**
- 1) "통일시대의 북학학" 당대 - 강정규
 - 2) "통일시대" 둘째 - 민성일
 - 3) "역사는 끝났는가" 당대 - 송두율
 - 4) "절망에이" 둘째 - 조성모
 - 5) "절망과 고통" 셋째 - 김진명
 - 6) "삼, 사, 그리고 과학" 동영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문화**
- 1)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신문 - 주경현
 - 2)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장작과 비명사 - 유홍준
 - 3) "서태지와 꽃다지" 한울 - 이영미
 - 4) "영화 속에는 이야기" 녹두 - 이효인
 - 5) "사색과 함께 노래와 함께" 녹두 - 박종화
- 역사/경제**
- 1) "다시쓰는 한국 현대사" 둘째 - 박세길
- 소설**
- 1) "배상백" 한길사 - 조재래
 - 2) "장길산" 장작과 비명 - 함석영
 - 3) "불날" 문학과 지성사 - 임철우
 - 4) "감오농민전쟁" 깊은샘 - 박태원
 - 5) "벗" 살림터 - 백남훈
 - 6) "난장이가 쫓아올린 작은곰" 문학과 지성사 - 조세희
 - 7) "장미" 민음사 - 유홍준
 - 8) "광장" 문학과 지성사 - 최민준
 - 9) "희망" 문학과 지성사 - 신경호
 - 10) "바람타는 섬" 장작과 비명사 - 한기영

30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민족동국 비상대책위원회/동대신문사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과 VS 동아리

△글쎄, 두 개 다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신은 멋진 여자, 남자. △4학년이 됐을 때 동아리든 과든 후회만 없으면 된다.

△학부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글쎄 열심히 하면 좋지만 어느 하나 열심히 하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학부제는 동아리가 더 좋지 않을까.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학과제: 과 > 동아리.



오수길

정소미 (상경대 경상학부 3)

“먼저 다가가서 도와드릴게요”

봉사하며 보람찾는 성실한 근로장학생

아버지가 정년퇴임을 하신 관계로 1년동안 해왔던 근로장학생을 한 학기 더하게 된 정소미양.

정소미양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도서관 한켠에서 대출업무와 책정리를 하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근로장학생 경쟁이 대학입시(?)만큼 치열하더라고요.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

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2학년때는 일도 처음이라 서툴고 많이 성실하지 못한 면도 보여왔지만 3학년이 되어 1년동안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제 근로장학금이 선배와 동기 그리고 후배들이 낸 등록금이란 사실

을 알고는 너무 개인적인 생각만 한 것이 아닌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입생이나 재학생들이 책을 찾지 못할 때 제가 먼저 다가가 책을 찾아 주면 많이 고맙워해요. 그때 별짓이 난 일이지만 큰 보람을 느껴요.

단점이에요? 무엇보다 시간을 많이 헛진다는 거겠죠. 방학때도 나와야하고 야간근무도 해야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조차 없을 때가 많지만 도



서관에 있는 분들이 저의 이런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가족같이 잘 대해주세요.

장점은 수업시간만 빼고 도서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업도 잘 배워서 한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그만인 걸요.

앞으로 조금만 더 성실해 지고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다들 힘들니까 다들 기운이 없잖아요. 그럴 때

먼저 다가가서 책을 찾아주고 웃어주고 싶어요.

굳이 주의를 살피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정소미양은 아주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도서관에 앉아 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어려운 이 때 자기 자신을 찾아 열심히 사는 그녀의 모습은 진정 아름답게 느껴진다.

박양우 기자

“공부하고 싶어요”

학습·자취공간 마련 시급

대학이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변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의 행정은 우리의 같이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을 계속하고 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점을 불편해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런 학교 행정은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 없다.

지난 학기말 선거를 통해 각 과, 학부, 단대, 총학생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원활한 학생회 활동의 필수 요건인 학부학생회실 조차 없다. 경상학부를 예로 든다면 작년 12월부터 경상학부 학생회실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다.

학교 당국은 올해 3월10일까지 학생회실을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재차 건의해서 일주일도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이 있었지만 학생회실을 만들지 않겠다는 학교당국의 이후 설명으로 보아 이 약속도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97년 학부 학생회의 시작과 더불어 계속 대두되어온 문제인데도 학교 당국은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강의 수강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교양수업을 하러 강의실을 가보면 조그만 강의실에 수용 인원을 넘은 학생들이 있는 것이 태반이다. 그래서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 분반을 하게 되어 특정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 온 학생들이 그 강의를 못듣게 되어 다른 교수님이나 강의의 수업을 듣게

나 이미 시작된 다른 강의에 들어가 힘겹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적 낭비와 혼란을 주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양대를 예로 들면 교양수업 한 강좌당 일정 인원을 정해 그 인원이 차게 되면 다른 강좌를 듣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우리 학교도 대안책, 해결책으로 빨리 모색해서 학생들의 불편과 시간적 낭비를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온방광 1만 학우들은 학교 당국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를 한 발 앞서 인식하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 불편한점들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임영진(상경대 경상학부)

특별사면조치 아쉬움 양심수 석방 미흡

내마음 한켠에 김대중 정권에 대한 어리석은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기대와 그리고 참담함은 어쩌면 독특한 한 나라의 감정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난 98년 김영삼정권의 출범을 기념하는 특별사면에서 내가 겪은 정서상의 경험

타인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정권출범에 맞추어 언론의 찬사 그대로 “해방 이후 사상 최대의 사면 복권 조치”를 단행하였다. 수적으로 많은 양심수가 사면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황석영씨는 석방되고 같은 작가이며 노동자였던 박노해씨는 석방되지 않았다. ‘사회주의 노동자’ 또는 ‘조선 노동자’, ‘한총련’이라는 단어가 소위 ‘사국공안사범’ 이름 앞에 있으면 김 대통령도 (김수환 추기경의 유감 표시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 같다.

지난 3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전문 계간지 ‘폴리티카 앙티나소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사를 표명했다. 정치적 신념을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나는 양심수란 용어의 수정을 주장한다. ‘정치수’란 용어가 옳다. 그 어떤 체제하에서도 개인의 또는 집단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많은 이가 커다란 좌절의 상처를 입고 있다. 보라빛 수건을 두르고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외치는 어머니들

이 눈에 들어온다.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실 어머니들이 많다.

양봉만(공과대 국민윤리학과)

민족의 주체성 살리는 바른 지식인상 구현해야

요즈음의 현대 사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 주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 대량생산으로 인한 풍요로운 사회는 인간의 욕심을 더욱더 자극해 물질만능 풍조마저 낳고 있다. 세월은 많이 변해 우리에게 더 이상 인, 예, 효라는 단어가 고루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컴퓨터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질서를, 개인이 그 사회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과거 선비가 지닌 사회 기능적 성격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며 사회를 유지시키는 양심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지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식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

이다. 지식인의 주장은 알게 모르게 대중의 행동과 정서를 지배하고 그들을 이끄는 힘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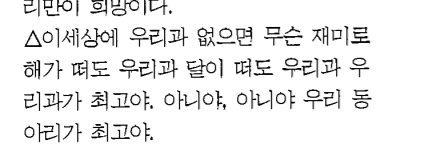
바로 이런 점에서 올바른 지식인의 상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하지 못해 비난을 받고 사회를 혼란스럽게까지 한다.

이 어려운 경제난국의 책임도 지식인들의 탓이 크다.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관만 유지하는 데 급급했고 책임 전가에만 많은 힘을 썼다. 이러한 난국임에도 책임지겠다는 목소리는 없고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과거 선비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세상의 흐름을 관조하며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대중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선비들의 정신이 오늘날 필요하다.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이제는 과거의 정신적인 것이 필요없다고 여겨질 수도. 하지만 어느때부터인가 서양에서는 동양적인 것, 동양에서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고유의 것을 지켜야 하며 그러한 면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동일 (공과대 건축토목공학부)



동대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9월 13일 문장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민식이 형, 복학 축하해! -북한 95-△재홍, 광수, 병용, 미연, 경·룡 반대표원 것 축하한다. -吉四-△제 20대 경제학과 이승산, 최은경 조 학생회장의 당선 축하합니다.

△닷컴! 설명회 잘 치렀다. 윤기, 정은, 영호, 미정, 영경, 은옥 입가 축하해! △사회과학계열 98 새내기 안정은, 박연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제 20대 경제학과 학생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머썬 사무국장-△경철행정학과 36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36기-△정옥 언니, 14일 생일 축하해.

△정옥 언니, 14일 생일 축하해.

수고하셨습니다

△9월 12일은 문과대 입방식이었습니다.

동대일

김경일 <3>



입방식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입방식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문과대 일꾼 여러분 더욱더 힘냅니다. -문과대-△불사! 4대 정보통신공학 전공 학생회 개강 총회 및 개강파티에 참가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회장-△사과편 공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축하해요. 97 수고 많았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사과편 공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 축하해요. 97 수고 많았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민적사 연구회 여러분! 전시회(선전)하느라 고생많으셨구요. 사랑해요.

이제는 왜 아저씨... 진옥아! 보고 싶다.

-우 98-

△정주형. 진옥아, 동석이 석방되면 경상도 집에서 감자탕 사주려고 쌀지돈 모아 왔는데, 아쉽고, 열받는다.

△동국대 매점에 판매가 라면이 없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우리 과 98학번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너무 반갑다. -94 회계과(자주)-△내 선배, 네 동기, 네 후배 사면·복권 안 시간 000정원은 각성하라. -아-△군산 동문회 하자! -광고학과 4년-△경상대 싸이아 완가! 군대 잘가! 빠빠이. -경상대 캠퍼스-

△국문 학생회장 캠프 멋있다. 착함 그 자체. 태식오빠! 축하해. 그리고 싸랑해.

△소중한 아이들! 새내기 여러분 열심히 해주세요. 경미, 윤효, 병효, 형근 소현, 효주야 환영한다. -소·아 이쁘니까-△수한 공룡·공룡 S & 문봉이의 복학을 축하합니다. -룡-△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경상학부 반 97박지민 선배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훈아! 송강호 흉내 그만 내라. 직사 시켜버려졌어. 직사!!! 종택이와 세훈이 복학 축하한다. -NO.3 전우회-△지은!!! 입학 축하하며, 타지생활 열심히... 그리고 언제나 곳곳 -C.Y.J-△경축! 9월 10일

영상매체비평

‘서울국제독립영화제’에 다녀와서

‘다양한 세계를 보는 힘’



올해로 2회를 맞는 서울 국제 독립영화제가 지난 3월 6일부터 13일까지의 공식 일정과 이틀간의 연장상영으로 치러졌다. 18개국에서 50편의 작품과 유령목 감독의 회고작품 3편이 함께 상영된 이번 축제는 일본영화를 특별색선으로 택해 국내외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감독과 작품을 소개하였다.

국제적인 관심과 평가 때문인지 일본영화 상영에 관객들의 반응은 훨씬 더 열광적이었고, 오히려 공식 상영작이 위축되는 느낌이 있을 정도였다.

최양일 감독의 내한과 ‘날은 어디에 떠 있는가’의 개막작품 선정도 화제거리였고,

폐막작품인 홍상수 감독의 ‘강원도의 힘’은 일찌감치 매진돼 그의 두 번째 작품에 거는 기대를 짐작케했다.

비교적 다양한 국가에서 출품된 것과 우리 독립영화의 질적 향상, 우리 영화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유령목 감독의 작품을 대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보기가 쉽지 않은 새로운 일본영화 상영 등 관심과 호응을 받을만한 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먼저 시기적인 문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관객동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주요 관객인 대학생은 개강 초인 관계로 더욱 유치가 힘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다. 관객층의 경우 많은 발전이 있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20대 위주의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형편으로 확산의 질적, 양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상영자 분류의 문제는 극장 설비의 문제(영사기 설치)로 16mm와 35mm 영화를 따로 묶어 상영할 수밖에 없었던 고로, 장르별 분류가 가지는 장점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티켓에매제를 하면서도 좌석 지정을 하지 않아 어떤 작품의 경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 보조 좌석을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첨가하자면 일본영화 선정의 경

우 유명세를 뒀던 이유로 다른 공식상영작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초래되었던 일을 들 수 있겠다.

시작 단계라고 해야 하지만, 여러 국제영화제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정들은 빨리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운영경비의 조달과 여러 매체들의 홍보에 대한 배려도 시급한 점으로 생각된다. 독립영화가가지는 의미는 일본영화의 부흥에서 보듯 간과해서는 안되는 필수영양분이며, 이는 영화제에 관계된 사람과 관객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유영근
본고 연영과 석사과정

칼수습기

정론직필의 한길을 가라 그대 정기자여!

자유에의 도취 꿈꿨던 대학시절 권리에서 의무로 사는 대학시절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1학년, 난 자유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 자유에 너무도 휩쓸린 나머지 일주일만 나에게 온전함을 다하지 못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5일만 간신히 명백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유에 치여 내동댕이쳐 버리기 일수였다. 10월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 계사관에 붙은 동대신문 수습기자 모집광고에 이끌려 나는 학생회관 지하를 일사터전으로 만들었다.

새롭게 만들어진 생활에서 나는 한 주의 온전함을 맞출 수 있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짜여진 계획속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몸에 꼭 조이는 옷과 같았지만, 차츰 난 즐거움을 느꼈다. 때로는 이러한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일상은 매일매일 분명히 달랐고, 새로운 의미로 나에게 부여되곤 했다.

그러나, 온전함의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수업과 취재사이에서 갈등하고, 기사와 공부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집과 신문사 사이에서 방황을 했다. 그런 나에게 누군가가 1개월의 유예기간을 허락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기사로부터의 해방감과 집의 편안함만이 내 행복의 원천인 것만 같았다.(어쩌면 나 자신의 합리화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유예기간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순간의 행복을 영원으로 믿고 그 일상을 매일 반복시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고여 있는 물은 썩는다’고 한다. 그 즈음 머리부터 시작해 발끝까지 나의 온 몸에서 ‘썩는다’라는 징후가 나타났다. 하지만 다행히도 동대신문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그 곳의 일원으로 동참시켜줌으로써 나의 좁고 어두운 세계에 구멍을 내도록 도와주었다. ‘내가 정기자여, 즉 언론인이라는 사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환기를 시켜 준 것이다.

처음에는 나의 단순하고 무지함이 부끄럽다고만 생각해 빛이 들어 올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렇지만 지금 난 그 구멍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 언젠가는 너무 커져 버려 구멍이라는 개념조차도 성립되지 않을 때까지.

오늘 난 정기자로서 다시 태어난다. 동시에 정기자로서 또 다른 수습의 마음으로 동대신문의 버팀목이 되려나.

사회과학대 사회과학계열 박영실 기자

시행착오 속 알찬 결실 정기자라는 값진 선물



두 가지 경우에 있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하나는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공감하는 말을 들었을 때이고 또 하나는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참지 못할 때이다.

신문사는 이 두가지 모두의 끄덕임 까리들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주는 곳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며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접하면서 끄덕이게 해주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동안을 누비고 더불어 발도 뽀뽀 새 버리는 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끄덕임의 공통점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신문사는 사람을 열심히 살도록 해준다. 새내기 시절, 나는 대학이란 곳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내가 그리던 대학은 어느덧 ‘현상속의 대학’이 돼버렸고 실제 대학의 모습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

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느새 현실 속에서 환상을 좇는 모순을 받게 버렸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한 없이 내태해져 가는 나를 느끼고 있을 무렵, 하나의 장삼을 보았다.

나의 내태함을 가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어 오는 자책같은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이곳 동대신문사로.

맹목적으로 달려들기는 했으나 그곳은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을 요구했다. 나의 생활은 급격한 변곡기를 맞게 된 것이다.

그때 나는 과도기적인 갈등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통약 전체를 쓰고 다녀야 하는 취재, 무거운 짐처럼 어깨 위에 올려지는 기사작성, 기사마감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임해야 하는 조판. 하지만 이러한 무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이라는 것에 덜 수 있었다.

이제 그러한 생활을 한 것도 6개월이 지났다.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지만 순간 순간 나의 고민이 배어있는 시간들이다.

‘탈수습’ 그리고 ‘정기자’, 이제 고민의 시간들이 ‘정기자’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때쯤 고개가 한 번 더 끄덕여진다. 내가 찾은 의미에 대해, 그것은 값진 것이었다고.

정보산업대 정보산업학부 남대철 기자

역경속에서 바위처럼 독자의 질타로 더 강한 기자될 터



나의 수습기간은 목적조차도 없고 사막을 헤매이는 기간. 고향의 푸른 하늘을 그리며 목놓아 울 수 있는 기억조차 허용되지 않은 시간. 하지만 푸른 하늘은 나의 희망이었고, 그 희망은 내 맘을 달래는 어머니와 같은 품이리라. 내가 바위처럼 있길 바라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도.

어떠한 체질로도 나를 삼켜내지 하더라도 나는 묵묵하게 바위처럼 나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 차라리 아무런 감정도 없이 사막에서 있는 바위가 되고 싶으라. 차라리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마냥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바위가 되고 싶으라

6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하나 하나의 사건들과 경험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을 나에게 던져주었다. 그것이 나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주는 원동력이 될 줄이야.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 느꼈던 고통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 기자가 되고난 후 나는 그 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위치에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하지도 괴로워 하지도 앓을 내기 되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바위처럼 더 묵묵히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쩌면 약간의 바위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남들에게는 별 것 아닌 시련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해본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에 나를 비판하고 내 미래를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그 기회로 다시 태어난 기자가 되었고, 내 자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던져 주었다. 나의 일을 해야만 하는 의무, 나는 지면에 자유를 그리는데 대신 기자가 할 의무를 주어 주었고, 그 의무가 무서울 정도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지금의 나는 과감히 감수할 뉘러 생각한다. 그 부담감을 업고 기자가 된 나는 3만 독자의 삶의 육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바위처럼 지켜나갈 것이며, 지난 날의 반성과 기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법정대 법정학부 박양우 기자

힘겨움을 동력으로 한걸음 내딛는 곳 삶이라는 계단 속 내가 선 곳 신문사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본 적이 있는가. 한걸음 한걸음씩 올라가며, 때론 서있기도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실땀없이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이제까지의 이름은 바로 ‘삶’ 이 아닐까 싶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갈릴길이나 있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한다. 바로 위의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지난 20년의 세월동안은 내가 스스로 선택했던 길은 없었다. 20년이 끝나가던 그 마지막 해의 대입까지도 나의 의지가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 삶의 21번째 되던 어느 가을날, 나는 처음으로 나 스스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무엇인가 해야한다는 엄청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두려움이 잠시나마 나를 머뭇거리게 했었다.

그 두려움을 내포한 채 들어선 나에게 신문사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며, 자신안에 갇혀 살아왔던 나에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나를 돌아보라고 다그쳤다.

체험, 일단 부딪쳐라. 이것이 신문사가 나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임무였다.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도 언제나 좋은 일을 위해 만나는 것도 아니기에 정겨운 대화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고통이었다. 이 고통속에서도 백지위에 남겨진 나만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나를 다그쳤고, 견뎌야만 했다.

하지만 또 다시 나를 신문사로 돌아오게 했던 것은 이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없어지면 나를 찾는 신문사 식구들, 이들과의 인간적 관계가 어지러웠던 나의 마음을 한곳으로 향하게 했던 가장 큰 힘이였다.

기다림, 기사를 마감하기 위해 견뎌냈던 6개월 간의 시간들, 이제 그 시간들은 어느덧 흘러서 나에게 수습이란 딱지를 떼어주려 하고 있다. 그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이 글을 쓰고나면 앞으로 더 많은 기다림과 고통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시련이 닥친다 해도 삶의 더 높은 계단을 오르기 더 높은 곳을 보기위해 지금의 고통을 견디어 내며 이 순간에 충실할 것이며, 정상에 서서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리라.

법정대 법정학부 황성규 기자

메아리 화합(?)

▲‘기대도 반만, 걱정도 반만’. 이것도 기대라면 기대일까. 지난 13일 새정부의 발표한 사면·복권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사면이 확정된 2천3백4명에 시작 사면으로, 우리에게 ‘양심수’란 이름으로 명명된 이들은 고작 74명이었다. ‘비정향’의 한 이유로 ‘관용’을 받기에 그들의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가?

▲그들이 서기엔 이방이 그들의 감옥경수 0.75명보다 ज्यादा. 김영삼정부의 ‘양심수 없음’은 ‘민주주의’ 열의(?)인 새정부에서도 여전히 힘을 내고 있었으며 보수·수구세력의 힘을 가미한 채 자유로움을 열망하는 이들에게 창살의 고리를 못 벗어나게 하고 말았다. 그리고 박노해씨를 비롯한 미진한 장기수들은 창살앞에서 다시 한번 이종전고를 받는다.

▲형석영씨는 출감하면서 제일 먼저 아직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에 대해 미안함과 정부에 대해 격정스런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더불어 이번엔 정부가 사면한 74명은 민가협이 제시한 전체 양심수 4백78명의 15%만 낮은 수치로, 오히려 김영삼 정부 초기 단행된 사면조치에서 보인 양심수 석방수치 28%에도 못 이룬다는 지탄만 받는다.

▲이 사회의 원칙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돼버렸다. 지역화합이란 명분(?)아래 전노사면이 이뤄진 것이 아직 생생하다. 그 화합의 명분과 원칙은 대체 어디서 다시 끄집어 올 수 있을까. 원칙없는 ‘민주주의’와 원칙없는 ‘화합파티’의 입장은 특별히(?) 선택된 계층만 살 수 있는 듯하다. 새 정부가 비틀(?)거린다. 새정부에

바라는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 변명 아닌 변명도 또 익숙해져야 하는지 무섭기만 하다. ‘민주주의’ 그 실질을 찾으려 부단히 애썼던 많은 이들은 아직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데, 정작 현실한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별 관심이 없을 뿐이다. 최정식 편집장

자이오스시

학교안에서

생활문화센터 개설

본고 대학원에서 여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 그림학교, 붓글씨, 경당학교 등이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열리며 수강료는 각각 4만원이다.

그림학교-한국화-매주 월요일 6시반, 강사 백수진(015-8373-2117) 서양화-매주 목요일 6시반, 강사 김민정(015-120-4929)

붓글씨-매주 화요일 6시반, 강사 이성환(3979-068)

경당학교-매주 화·목요일 6시반, 강사 이원호(263-0740)

학교밖에서

안치환과 자유 Vol. 5

번지 않는 자유의 희망을 노래하는 안치환과 자유의 5집 앨범, 시대를 향한 솔직한 바람과 갈망을 간절하게 노래하고 있는 이번 앨범은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비롯한 15곡이 수록되어 있다.

주류 음악의 흐름과 제도를 달리 하며 이 땅의 진정한 노래의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다.

(주)킹 레코드 출시.

전경호 데뷔앨범 '혼자 사랑'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추구하며 완성도 높은 앨범 작업으로 대중 음악에 새 장르의 출현을 예고하는 예술가요즘만, '혼자 사랑 I ARTTOP' 혼자 사랑 II CLASSIC'의 두장 앨범으로 이루어진 쌍둥이 앨범이다.

안치환과 송창식이 게스트 싱어로 참여했으며 도종환, 최영미, 하중호 등의 시에 곡을 붙인 서정적인 노래들로 구성했다.

생각하는 모의 기획, Km-music 제작.

한겨레문화센터

한겨레신문사 문화센터에서 불강좌를 실시한다. 오는 23일부터 개강하는 이번 행사는 전문학교, 전문강좌, 생활강좌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정수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이다.

문의-한겨레문화센터(3272-7575)

20대에 해야만 하는 세가지

달하나 건강에



손세현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

늘 느끼는 것이지만 3월의 캠퍼스에는 생동감이 넘친다. 이는 겨우내 말쑥했던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소 세련미는 떨어지지만 순수함이 넘치는 새내기들이 캠퍼스 이곳저곳에서 거침없이 쏟아내는 발랄함과 생기가 더 큰 이유 이리라.

색채로 어떻게 그려나갈지는 전적으로 새내기 자신의 몫이다. 다만 20대의 같은 길을 지나온 선배로서 굳이 조언을 한다면 적어도 나름의 세가지는 20대에 꼭 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비장의 카드 하나쯤은 준비해야만 한다. 살다보면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것만은 아니고 때론 뒤로 물러서야 하거나 적당한 타협이 요구되될 때도 많다.

이럴 때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담당한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특기가 있어야만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확실한 수준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시간이란 쓰는 사람에 따라 그 길이가 다르다고 한다. 인생을 준비하는 20대, 특히 대학 4년은 젊음의 치기와 낭만이라는 허울 좋은 환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보내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들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새내기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통해 대학생활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2 석굴암 건립 논쟁

건립·보존이냐? 진단·보수냐?

명확한 근거자료제공, 공식적 여론수렴 거쳐야

96년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때 김대성에 의해 조성된 건물로서 1천년 이상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 대표문화유산이다.

이러한 국제적 문화재 석굴암에 대해 최근 들어 '제2 석굴암 건립 논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에 거론된 바 있는 제2 석굴암 건립문제에 당시 불국사의 완강한 저지로 무산되었으나 지금은 불국사 측에서 시정에 석굴암 현상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불국사 측은 이에 대해 "시정에 신청서를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제2 석굴암 건립에 대해 본교 역사철학부의 김복순 교수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의 예를 들어 "모조 석굴암을 건립해 기존 석굴암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신라문화 동인회의 김광해 사무국장은 "현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존재해오던 문화재의 모조품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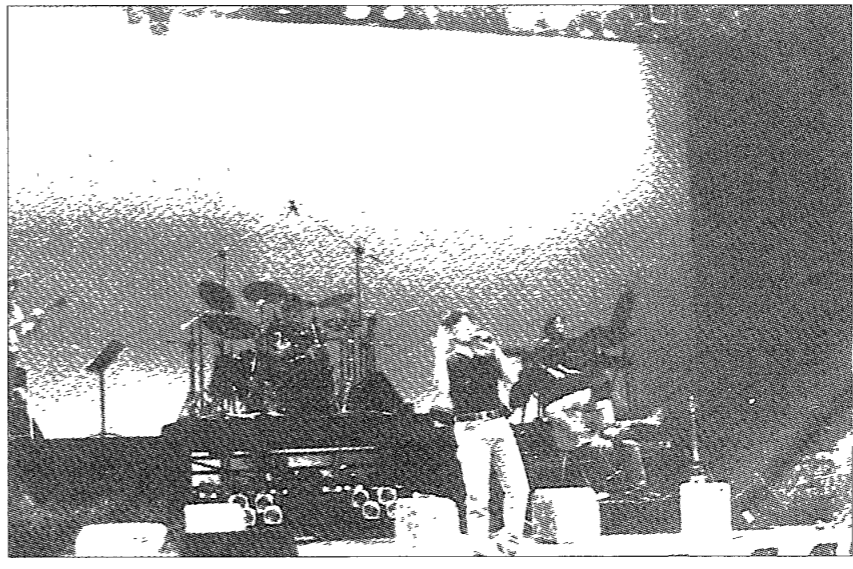
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며 "석굴암의 파손 부분을 진단·보수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현재 석굴암의 훼손을 막는 방법으로 모조 석굴암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파손이 아무리 발달 하더라도 문화유산을 과학의 기술로써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석굴암 건립문제는 종교계, 일반 시민,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국립문화재 연구소는 작년과 재작년에 실시한 석굴암 안전점검 결과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정해 석굴암의 훼손 상태가 그리 크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현재 유리관에 보호되어 있는 석굴암의 더 이상의 훼손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논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 제2 석굴암 건립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모조 석굴암이 얼마만큼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를 양쪽 모두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황성규 기자



지난 10일,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열린 꽃다지의 공연 모습.

희망의 노래 '꽃다지'는 건전한 진보세력을 지켜주며 노동자들을 위해 노래로써 '운동'을 하는 노래패이다.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서의 노래를 들려주고자 1992년에 결성된 꽃다지는 1987년, 노류가요를 전문적으로 부른 '노동자 노래단'과 '삶의 노래 예술팀'이 그 모태이다.

현재 7명의 남녀 가수와 5명의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음처럼'과 '바위처럼'을 불러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요즘은 '노래만큼 좋은 세상'과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화가 곧 내 삶이다"

편견 뒤집는 '좋은 영화' 만들어 세상의 작은 변화 꿈꿔

자 대학을 졸업한 24살의 여자들은 대부분 정장과 구두, 핸드백 등을 두루 갖춰 사람들을 만나다. 그러나 그녀는 땀 뻘뻘 청바지에 까만 가방을 메고 약속 장소인 바이 흰히 내다보이는 창 앞에 앉아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97 금관단편영화제 장려상 수상', '열린영화제 제작지원작 선정' 등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달기'의 전영선 감독이라는 사실은 빨갛고 까만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한 바라본 후에야 알 수 있었다.

"글쎄, 상을 받고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떤 영화에 상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선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좋은 영화'에 대한 규정이 틀릴테니까"

그렇다면 감독이 생각하는 '좋은 영화'란 어떤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영선감독은 한번 웃고, 어렵다며 잠시 머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화는 주인공이 영화를 보고난 후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만 할 뿐이죠. 그런 영화면 좋할 테구요"

그래서 전영선 감독은 예술영화보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봐야 많은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슬픈편 편견과 독선에 부딪히는 일일 게예요. '나쁜영화'가 사람들의 독단 속에서 재단 되는 것이 슬프듯이 말예요"

한때는 어려운 책을 읽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며 애를 쓰다가 그런 것들이 위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전영선 감독. 그녀는 '피떡'을 타고 추한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는다고 한다. 유치하다고 의문당하는 것들

을 소재로 세상이 갖는 미에 대해 도전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작은 변화를 꿈꾸며 말한다.

"난 내가 감독이라고 생각하 본적은 없어요. 그냥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 삶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달기'를 만드는 내내 '달기' 주인공 '리리'나 '모모'로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는 전영선 감독은 영화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났던 대학 4년 동안 영화를 생활로 만드는 방법 또한 배운 듯 했다.

서태지와 '남민'이란 단어, 빨간 립스틱을 좋아하는 전영선 감독은 '영화처럼 사는 여자'가 아닌 '영화가 곧 삶인 감독'이 되어 충무로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최진 기자

꽃다지 봄 콘서트 '반의자'

삶의 희망 싹 틔운 따뜻한 자리

'설곳' 없는 노동자의 '설곳' 만들 터

평범한 체크무늬 남방에 무릎나온 청바지. 무대 위 가수들의 요란하지 않은 차림은 이 공연이 일반 콘서트와 다르다는 것을 짐사리 짐작하게 한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 3월 콘서트 '반의자'가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열렸다. 동삼이몽(同床異夢)이란 제목으로 유진박, 인순이와 함께 릴레이 콘서트로 펼쳐진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그동안 경제위기가 뭐다해서 쌓여 있던 답답함을 풀게한 한복의 장이 되었다.

공연의 주제 '반의자'란 자리를 잃고 해매는 노동자의 마음을, 그러나 언젠가는 기쁨으로 돌아갈 고향같은 노동자의 일터라는 의미한다. 이러한 주제를 꽃다지는 단숨에 노래만큼 통해 알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그림자극과 실례를 통해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 관객들은 숙연해지기도 했다.

총 4부로 구성된 공연은 고통분담을 운운하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된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는 노래 '갈실이데 마'로 시작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노래한 3부는 관객들로 하여금 박수보다 한숨부터 내쉬게 하였다.

하지만 "저놈의 세상길 가파르긴 해도 오르지 못할 세상은 아니지" ('언덕길' 중)라며 "너무 힘들면 잠시 있어도 돼. 네가 가버릴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힘들면 잠시 있어도 돼' 중)라고 고개 숙인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꽃다지는 "누가 뭐래도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중)라고 노래했다.

꽃다지는 마지막으로 "새싹을 틔우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을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꽃다지가 공연에 앞서 밝혔듯 그들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 대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현황과 인해 밝아 왔어도 봄을 느끼지 못했던 관객들은 돌아가면서 꽃다지의 이름만큼이나 향긋한 봄 내음을 가슴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들의 가슴에 사랑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었기에.

김미경 기자

책 소개

지식의 세계

21세기를 향한 지적 순례'라는 주제를 달고 나온 이 책은 본교 정치외교학과 황태연 교수와 16명의 필진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및 현대 세계의 이해를 구하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시대 대학생들을 이성과 도덕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도가 독자에게 가슴으로 와 닿길 기대한다.

동녘, 정가 9천 8백원



별이 유난히도 총총한 토요일 밤이었지.

늘 앉아있던 과학도서관 6층 창가자리. 그날따라 공부가 손에 안 잡혔어. 어제 과유한 달빛이? 영식이 녀석, 술버릇은 여전하더군. 그나저나 벌써 4학년인데 취직은 점점 힘들어지고 아~고민이 한두가지가 아니야.

난 그길로 도서관을 나왔다. 10시가 조금 넘었더군.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렸어. 내려가려는 순간 "잠깐만요!"

그녀는 바로 얼마전에 본 영화 '원나잇스탠드'에 나오는 나스타샤 킨스키였어. 나... 뭘고있니?

문이 닫히고 그녀와 나, 단 둘만이 1평 남짓한 작은 방에 남았던 거야. 그녀의 향기가 내 코 끝을 스쳐 지나갔어.

이럴 때 영화에서처럼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안되나... 쯤.

그 때였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거야. 3층 쯤에서 엘리베이터가 덜컹 소리를 내며 스톱한 거지. 오 마이 갓!

그녀를 힐끔 보았어. 그녀는 웨슬리 스니입스를 다시 만났을 때 애써 침착했던 나스타샤 킨스키처럼 천천히 비상벨을 눌렀지.

그러나 늦은 토요일, 수위아저씨는 내편이었어. 퇴근을 하겠는지 전혀 응답이 없는거야. 얼마전 길에서 얼떨결에 구입한 이동전화 x x x가 생각났어. 어떻게지? 그녀를 구출하느냐? 그녀와의 찌릿한 시간을 즐기느냐? 근데 여기서도 통화가 되나?

살짝 꺼내보았어. 역시, 통화불능지역! 난 그녀가 불가 재빨리 넣었어. 호호, 역시 이걸 운명이야. 아~

그 순간 그녀도 가방에서 이동전화를 꺼냈어. 난 속으로 피씩 웃었지.

그러나 이게 웬일? 누르자마자 터지는 경쾌한 전화벨 소리! 스피드011 로고마크가 눈에 짝 들어오더군...

우린 119의 도움으로 5분도 못돼 구출되었어.

나스타샤 킨스키와 나를 갈라놓은 스피드011. 아무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그날 밤, 그 구역적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통화가 될 줄이야. 아~ 알미운 011...

그리고 난 깨달았어. 이쁜여자는 꼭 스피드011이 있어야 한다는 걸... 왜냐구? 급할 때 통해야 하니까.

급할 때 제대로 통하는 이동전화 - 스피드011 뿐입니다

